



불안정한 안정

* 6/15(월) ❶ 에스라 5:2-6장 ❷ 에스더1-3장

지난 통독줄거리

왕하25 남유다 멸망
시편137 포로살이의 서글픔
애가1-5 멸망, 슬픔, 고통, 간구
에스라1-5 귀환, 성전재건 시작/중단
학개/스가랴 성전재건 재개 촉구

에스라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

5:2-6장 성전건축 완성

에스더 타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1-2 타국 유대인 디아스포라

3-4:3 위기: 모르드개와 하만

4:4-5:8 결단: 모르드개와 에스더

7-8 하만의 죽음, 새로운 조서

9:1-16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구원

9:17-10 부림절의 제정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고레스 559-530(주전)

고레스 칙령(538) 1차 귀환(536)

성전재건 시작

캄비세스 530-522

다리오(다리우스1) 522-486

성전재건 중단(16년간) 학개

재개(520, 다리우스2년) 스가랴

완성(515, 다리우스6년)

아하수에로 (크세로크세스)

486 -465 에스더, 모르드개

아닥사스다1(통기마누스)

2차 귀환, 에스라(458) 영적개혁

3차 귀환, 느헤미야(445) 성벽재건

참고도서

두란노 How,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다시 일어서는 목회(유진피터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서는

고향으로 귀환한 공동체 이야기를 다룹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 이후>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습니다(에스라 5-6장).

한편, 타국에 잔류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공동체,

그달리아 총독 암살 후 함께 도망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이집트 엘레판틴 공동체(왕하25:25-26).

그 외 모압, 암몬, 에돔 등 주변 지역으로 이동한

유대인 피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에스더서, 다니엘서는 타향살이 중인 유대인들의 삶,

그들의 지위와 처지, 에피소드를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름의 번영을 누립니다.

정착한 곳에 안정적인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에스더나 다니엘처럼 고위직에 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은행을 운영할 정도의 부와 수완을 갖춘 이들도 생겼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 길이 열렸지만

그들에게는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호의는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거대권력 <하만>이 하루아침에 원수로 변합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주사위 하나>로 결정됩니다(에3:7).

어제는 권력 서열 1-3위 중 하나였다가도(단6:1-3)

어느새 사자굴 속의 신세가 됩니다(6:16).

왕후라도 그 자리가 견고하지 못합니다(에1:12, 2:19, 4:11).

<제국>의 결정은 급작스러웠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상식, 논리, 감정 그 어느 것에도 호소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안정>을 누렸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은 귀환 길을 열어주고, 종교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하고 성전을 짓도록 재정도 후원했습니다(5:13).
그러나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왕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감정과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나긴 날의 잔치, 주흥, 즉흥적인 제안, 진노와 폐위, 뒤늦은 후회(에1장),
그는 왕이라는 무거운 지위를 지녔으나 변덕스럽고도 무책임한 언행을 보입니다.
주변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와 갈등을 회피합니다.
혹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2:1-4, 3:7-11, 8:4-8).

제국의 <잔치> 역시도 이중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잔치>는 공을 기리는 흥겨움과 축하의 자리요(1:4),
누군가에게는 폐위와 수치의 장소입니다(1:11-12, 19).
누군가에게 <잔치>는 자신의 지위를 가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지만(5:8, 11-12, 마14:6-8),
누군가에게는 목베임과 몰락의 장소이기도 합니다(마14:10-12, 예7:8-10).

에스더서는 부림절 절기에 낭독되었습니다.
그들은 번영과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합니다.
제국의 호의나 삶의 잔치가 한순간 뒤집힐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권력과 부, 성공과 안전이 한순간 날아갈 수 있는 <불안정한 안정>임을 되새깁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절기지만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유월절 다음 가는 절기로 여깁니다.
<해방(exodus) 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맥락에서 두 절기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총리와(창41:43) 왕후까지(2:16-18) 배출한 민족이었지만,
격동의 시류와 영아학살, 민족멸절의 위기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출1:16, 예3:6).
백성들의 번영과 생존은 근면함이나 수완, 인맥, 정무적 감각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위직에 오른 누군가의 노력이나 영향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과 생명을 떠받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만>과 마주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뼈아픈 역사를 지나며 <제국>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지,
이익 앞에서 조약과 협약마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부와 권력, 그 <잔치>의 신기루를 경험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네.
산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
(메세지 성경, 시편 121:1-2)